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내 한 생각에 열두지옥 다 무너져”

17면에서 계속

나오면 '감사해' 하고 그 자리에다 놓으세요. 자기 자부처를 높이 보지도 말고 알게 보지도 마세요. 과거 수억겁 공덕을 거처온 자기며, 바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며, 자기를 진화시키는 자기며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모습과 권리와 삶을 가져나오는 자기 부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 다 맡기고 관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지켜줄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다 놓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나온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구...' 하지 말고 '밥이라도 먹었니? 참지 않았니?'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라고요. 그랬더니 어느날 그 아이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들어오더니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뭐 도와드릴까요?' 하더니 어머니가 하고 있던 일을 빼앗아 김치독을 죄다 닦아주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하려고 이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마음이 오고 싶어야 몸이 오게 되는 거지 마음이 오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몸이 와 집니까? 마음에서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마음에서 저지른 잘못도 마음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잎이 병이 들어도 그 원인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부터 살펴보고 에너지를 줘야 이런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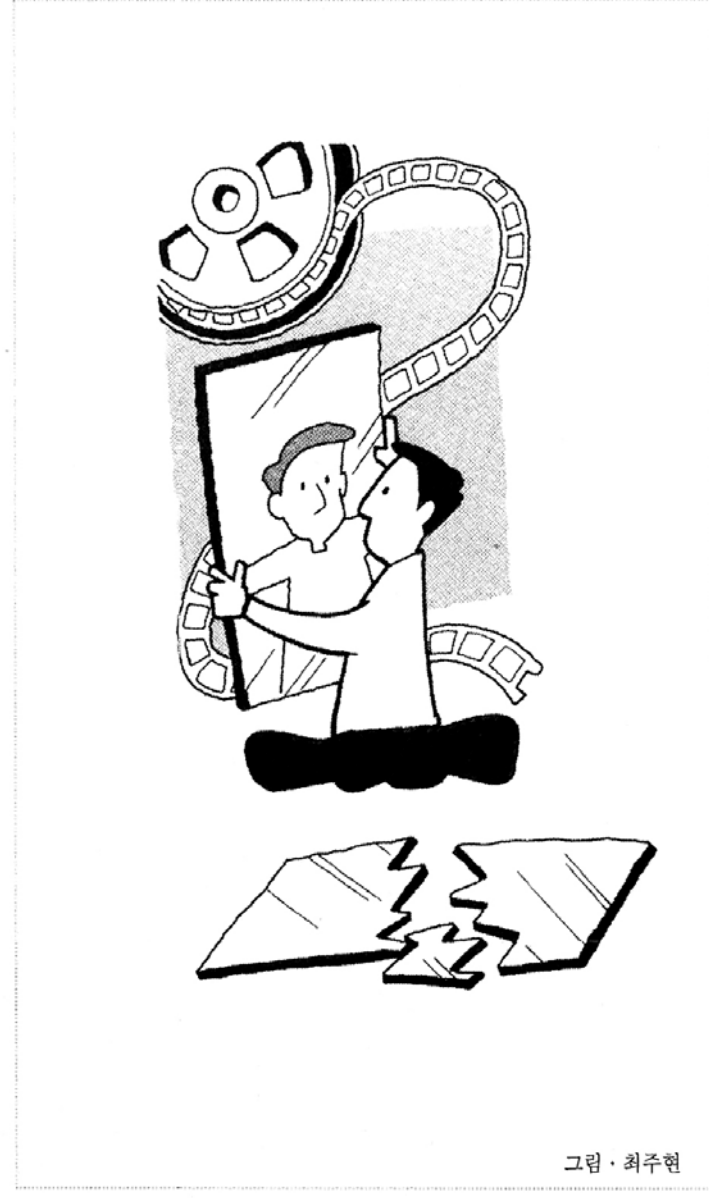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거든 자기발전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 통신을 하고 에너지를 배출하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정수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에 관하면 대뇌를 통해서 정수로 가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가지고 나올 때는 바로 대뇌를 통해서, 또 사대를 통해서 이 오장육부의 모든 생명들이 움직여지게 만듭니다. 이 모두가 심성과학이나 심성의학이지, 심성천체물리학과 되고 심성철학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죠. 아무리 물질이 많고 과학이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든 거지 판 데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면 기운이 없고 쓰러지듯이, 마음에도 닦치는 대

육조스님이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대로 여여한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만법을 들고 내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깥으로 쓰러지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라도 안으로 입력이 되게끔 거기가 꼭, 잘못된 건 '잘못되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고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이렇게 하라'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이나 태양의 근본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고 한 것처럼 일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한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내 한마음이란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그저 한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과 모습이 주어집니다”

지금 좋은 생각으로 입력했던 것이 바로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진리이며 또 그렇게 무궁무진하고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 저 옥수수나무로 비유하자면 자기 뿌리에 '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 쓰러지면 안되니까 뿌리를 깊게 박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한다면 옥수수나무가 생각하기를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게 되면 자기 뿌리가 약해져 쓰러지게 되니까 넓게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깊게 박습니다. 옥수수나무 초저 그늘진데 하물며 고등동물이라는 사람이 해서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한다면 아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나무에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물을 먹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줄기와 잎을 싱싱하게 잘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근본뿌리가 있어서 밖에 보이는 일을 두고 알기알부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없지만 자기 뿌리에다가 믿고 관하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닦쳐오는 문제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이 가정을 지켜줄 수 있어.' 하고 지극하고 간절하게 관한다면 뿌리에 영양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관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도 마음으로는 가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기에 마음으로 고장난 건 마음으로 풀어야 되죠. 내가 진실로만 관한다면 반드시 통신이 됩니다. 마음으로 화합이 안되는 것을 그걸 모르고 욕하고 때리고 또 그 똥똥이를 잡으려면 아니되죠.

그럴 때 '오직 너만이 저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 하고 자기 주인공에다 자기 관하면 그 쪽 주인공에다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것도 한순간에 녹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집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속이 상해서 나더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줬죠. 절대 바깥으로 아들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서 '주인공, 너만이 아이가 들어오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게 와도 '오늘의 자식, 망할 자식, 어찌

지금 현재에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신다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사는 걸 생각해 본다면 미래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고 또 미래가 과거가 되면서 현실로 오는 거니까요. 모든 걸 닦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마세요. 인생이란 그저 한철 사는 겁니다. 한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권리와 삶과 차원과 또는 모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중천세계이니까 삼천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천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천세계에서 잘못하면 하천세계로 떨어지거나, 차원이 높아지면 삼천세계로 올라가는데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천세계와 중천세계와 삼천세계가 따로 없이 잘 나찰나 그냥 함이 없이 들고 돈다고 했

‘해주시오’ 남한테 의지하게 되면 기쁨이므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누가 내 행복 대신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로 모든 것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 내가 컴퓨터에 입력을 안해놓으면 나오는 게 없죠? 또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아주 나쁜 것 또는 더러운 구멍물만 있을 때는 그것이 풀려나오면서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구멍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진 않으시죠? 그렇게 안 하려면 모든 것을 '구멍물이 나오는 것도 거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되뇌야 통신이 되죠. 구멍물을 새물로 바꿔 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잘 되면 '아, 이것도 우연이야' 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받는 것이죠. 누가 행복을 갖다주거나 빼앗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만이 행복하게 만들어 살 수 있는 거지 누가 내 행복을 대신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부

환생했다면 제사는 왜...
 3대 조상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불교에선 윤회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사를 모시는 조상님들이 혹시 환생해서 이 시대에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조상과 전생의 후손과 지금의 내가 공존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깨우쳤다고 함이 없는 분이려면 '윤회가 있으랴' 할 것이고 또한 많은 조상님들이라 해도 체가 없고 나 또한 체가 없는 근본 마음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 제사란 내가 나한테 올리는 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모르면서 제사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삶의 도리와 조상님들의 은혜를 알게 하겠습니까? 도덕과 교훈은 어떻게 알게 하고요? 제삿날을 잊지마시고 자손들도 잊지 않게 하십시오.

물 한그릇, 초와 향, 등근 떡 하나면 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것이 사는데 아닌 환상의 생활이지요.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깨달음에 나도 없고 조상도 없는 것을 아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
 어머니를 대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얼마전에 아들을 잃고 슬픔을 못이겨 하시다가 간절한 정성으로 천도재를 지내셨습니까. 그 후 여동생 꿈에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온 식구가 문병을 갔는데 하얀 이불보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곧 나갈텐데 뭐하러 왔느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입원할 때와 달리 피부가 아기처럼 깨끗하더라고요. 스님, 답을 청합니다.

꿈에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텐데 무슨 걱정을 하시나요. 꿈과 현실이 틀이 아닌데... 그리고 무슨 꿈을 꾸던 한 생각 잘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나’ 만들고 진화시키는 자기부처 바로 봐야 “몸은 바쁘게 뛰면서도 마음은 좌선해야죠”

수 있어' 하고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어야 자기 나무가 살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나무가 저 나무에게 에너지 좀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에너지가 오지 않아요. 자기 뿌리에서만 자기 싹을 도울려고 에너지가 배풀어지죠.

이 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공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공체며 공심이며 공용이며 공시화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한 게 없고, 혼자 먹은 게 없고, 혼자 본 게 없고, 혼자 들은 게 없고, 혼자 움직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두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열두 지옥을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열두 지옥을 넘을 때 고통이 얼마나 많으며 또 이렇게 한 생 뿐이 아니라 억겁의 공덕을 지나도 다 못 지나니,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두 지옥을 넘을 때에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선 한 발 움직여 리지도 않고 이 세상만사를 통괄해 두루, 여러분이 진실하게 관할 때는 아니 왜주시는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관할때도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해 주시오' 하면, 남한테 의지하는 것이 되므로 기쁨이 돼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너만이 할 수 있다' 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더러 하는 겁니다.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거울에 비치는 것이 당신 모습이지 딴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이 환상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것도 환상이예요. 그러나 마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뚱이 속에서 천차만별의 의식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성, 업보성, 또는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런 것이 모두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즉 업보성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 이 모두를 닦치는 대로 누가 아프다 해도 '너만이 내게 할

지런히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누가 대신 깨우쳐 주고, 먹어 주고, 통뉘 주고, 잠 자 주고, 아파 주고, 죽여 주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또 한가지 얘기할 것은 자식들과 남편을 등한시하고 절에 나와서 좌선한다고 야단을 하는 사람, 절대 그건 안됩니다. 일을 할 때는 행선이요, 서서 걸어가 때는 바로 입선이요, 드러누워서 잘 때는 좌선이요, 앉았을 때는 좌선이요, 이렇게 행선 좌선 입선 좌선 이것이 다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것입니다. 바쁘게 뛰면서도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만 앉혀놓는다고 좌선이 아닙니다.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받는 것이죠. 누가 행복을 갖다주거나 빼앗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만이 행복하게 만들어 살 수 있는 거지 누가 내 행복을 대신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부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받는 것이죠. 누가 행복을 갖다주거나 빼앗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만이 행복하게 만들어 살 수 있는 거지 누가 내 행복을 대신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부

협찬 이정근·최현순·신병욱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51-242

기꺼운 안목을 모두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

AS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름